

# “개산조 태허 스님 가르침 펼칠 것”

## 관음종, 내년 창종 50주년 개산조 태허 스님 사상 선양

“관음종 개산조이신 태허 스님은 한국 대표학승으로 화엄교화의 대가인 경은 스님의 제자이지만 평생을 법화행자로 법화법맥 전승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화엄경과 법화경 속에 담긴 참뜻을 살피고, 태허 스님이 밝히고자 한 화통을 통한 새로운 불교 전승에 앞장서겠습니다.”

1932년 29세의 나이로 대강백인 경은 스님 문하로 귀의한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 태허 스님은 화엄경을 배운 뒤 법화수행자로서 대중포교에 앞장 선 선각자였다. 2015년 관음종 50주년을 앞두고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와 수행에 대한 대표경전인 <화엄경> <법화경>. 두 경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펼친 태허 스님을 선양하고, 그 사상을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0월 27일 총본산인 서울 낙산 묘각사에서 태허조사 사리친견법회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의 전승과 실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

했다. 사리친견법회에서 홍파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가는 것은 그 근거에 따라 제각각 다르기에 이를 언어와 문자로 잘 다듬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처님 가르침이 종교적 신앙과 신해의 지침이 되는 것을 초월해 인간의 기본 윤리와 도덕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살펴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관음종 총회의장 범명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불교중흥의 기치를 세운 태허 스님의 발원에 따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롭게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같은 허리가 잘린 민족이 하나가 되고 이 땅이 불국토가 되어 화희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범회 이후 원통보전에서 태허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태허 스님 사리는 순천 선암사에 조성한 부모탑에 11월 1일 봉안됐다. 노덕현 기자



관음종은 10월 27일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개산조 태허 스님 사리친견법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1면에 이어>

현재 조계종 포교원은 신도품계 활성화를 위해 신도 조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지난 10월 23일 ‘신도조직 개편 관련 종합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도조직의 구성 원칙과 회원 자격, 임원 임명 등의 요건을 종합에 명시화하고 중앙신도회-교구신도회-사찰신도회의 대의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찰 신도회는 ‘당해 사찰을 재적사찰로 하는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로 구성해야 하고 사찰 신도회장 역시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로 사찰신도회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그간 입법 미비로 이뤄지지 못했던 중앙-교구-사찰 신도회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 보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품계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회 구성을 품계 품수자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사찰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신도품계

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품계자로 신도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단 신도 조직이 빠르게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교구 신도회를 전부 구성해 12월 말에 중앙·교구신도회 임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법회와 전문교육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품계 제도를 통한 신도 조직화의 초석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신도품계의 활성화 성패는 일선 사찰과 신도들의 호응에 달려 있는 것이다. 품계자로 구성되는 신도회 이외에도 발심 품계 등록에 대한 주의 인사고과 반영 등의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신도품계 제도는 사부대중의 종단 정체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신도회 조직 체계 정비를 비롯해 중국에는 주지 인사고과에도 반영해 품계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이나은 기자

# 법계 연수 활성화... 직무제도 초석 놓다

## 조계종 법계별 연수, 첫 시행에도 스님 참여 활발

**실무·심화·지도자·최고 과정 대부분 50~80명 스님 연수 참여 양질 강사로 강좌 진행 ‘눈길’**  
**“법계직무제도 시행 기틀 닦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조계종 법계별 연수교육에 대한 종단 스님들의 호응이 높다. 이에 따라 종단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계 직무제도의 기틀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은)은 올해 처음 ‘법계별 연수 교육’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했다.

법계별 연수 교육은 일종의 특성화 교육으로 법계별 위상과 역할에 따른 교육을 골

자로 한다. 연수과정은 △견덕·계덕(5~9년)을 위한 종단리더십실무과정 △중덕·정덕(10~14년)을 위한 종단리더십심화과정1 △중덕·정덕(15~19년)을 위한 종단리더십심화과정2 △대덕·혜덕(20~24년)을 위한 종단지도자과정 △중덕·현덕(25~29년) 종단최고위과정 등 5회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의무사항이 아닌 최고위 과정은 4월에는 스님 34명 참가에 그쳤지만, 10월에는 6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른 과정들 역시 상반기보다 하반기 참가 인원이 늘었고 평균 60~80명이 참가했다. 첫 시행된 연수 프로그램이지만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

가다. 무엇보다 법계별 연수는 각 법계별로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승남 5년에서 9년 사이인 견덕·계덕은 사찰과 포교 현장 등 전법과 수행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실무를 배우고 현장성을 익히는 교육이,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승남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중덕·정덕 스님에게는 사찰 주지 자격과 상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후학을 지도하고 수행과 전법에 관련된 교육을 집중했다.

총무원 부실장 등의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승남 20년에서 24년 사이의 대덕과 혜덕에게는 지역사회 및 교구와 종단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교구본사 주지와 계단위원 등을 맡을 수 있는 승남 25년에서 29년 사이 중덕·현덕은

현대사회 인류의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진들도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원로의원 고우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등을 비롯해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 김재춘 서울시장 보좌관, 김희옥 동국대 총장, 장화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의 밀도를 높였다. 교육 기간도 2박 3일로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법계별 위상과 역할에 따른 한국사회 현실과 불교의 역할을 고취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수교육을 기획했다”면서 “이 같은 연수교육이 진행되면 종단이 추진하려 하는 법계 직무제도의 초석이 자연스럽게 놓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조계종 내년도 예산 480억원

## 29일 증무회의서 예산안 확정... 전년 대비 7.4% 증액

**일반회계 240억원·특별회계 239억원**  
**총본산 성역화·승려복지 등에 집중**  
**인건비 조정·일반 사업비는 삭감해**  
**11월 11일 16대 개원 총회서 의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이 48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회계 240억 4천여 만원과 특별회계 239억 7천여 만원을 합친 것으로 올해와 대비해 총 7.4%로 증가한 액수다.

조계종 기획실은 10월 29일 오후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전 증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오는 11월 11일 중앙총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올해 예산 기초는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 등 34대 집행부 중점 전략과제에 집중 편성됐다. 대신 휴일수당 조정을 통한 인건비 축소, 일반 사업비의 예산을 줄였다.

기관별 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 증무행정이 이뤄지는 총무원 총무부, 기획실, 문화부, 홍보부, 포교원 등은 예산이 축소됐다. 하지만 종교용지 등의 특별회계 전출이 있는 재무부와 내년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진행하는 사회부는 예산이 각각 22%, 8%로 증액됐다.

중점과제에 대한 사업 집중을 위해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로 5억 원, 승려복지에 2억 원,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5천 800만원

이 각각 특별회계로 전출된다. 또한 내년에 열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에 3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세입 부문에서는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밝힌 대로 중앙분담금을 동결했다. 직할분담금도 동결됐지만 약사사와 선암사 직할 전환으로 소폭 상승했다. 법인분담금은 선학원이 1억 원으로 동결됐고, 법인등록을 한 대학회는 2000만 원 감액됐다. 문화재 관람료 분담금은 올해 대비 6% 증가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 관계자는 “각종 세입 감소 및 중점 전략과제 집중에 따라 일반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축소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했다”면서 “이를 통해 34대 집행부 중점 전략과제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비구니 원로 스님들 “是非 멈추길” 일갈

## 불필 스님 등 12명, 30일 서한문... “정법안장 염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내용에 대해 비구니 원로위원 스님들이 소독없는 시비를 멈출 것을 일갈했다. 불필 스님, 명성 스님, 범희 스님, 혜해 스님 등 12명의 비구니 원로위원 스님들은 10월 30일 서한문을 통해 시비보다는 수행자다운 해법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들은 서한문에서 “현재 비구니 승가

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비승가적 행태를 지켜보며 실로 깊은 우려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독화살의 비유처럼 소독 없는 시비를 일삼기보다 부족한 점은 대화로 상호보완하며 수행자다운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는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보탑”이라며

“임원진과 열린비구니회모임(가칭) 간에 불거진 문제의 사안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비구니모임은 전국비구니회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으며, 강원 강사 스님을 비롯해 선원 수좌 스님들은 열린비구니모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비구니 원로 스님들의 호소가 장기간 화되는 비구니 승가의 갈등에 해결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 동국대 총장 선출 절차 본격 돌입

## 28일 총장추천위 규정 개정

동국대가 김희옥 현 동국대 총장의 2015년 임기 만료에 따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제18대 총장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10월 28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 홀에서 제259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을 일부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총장 후보자 자격을 기존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 및 교직원 외에서 현직 총장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선할 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총장후보자추천위 구성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총추위는 조계종 추천 종단 대표위원 4명, 교원 대표위원 12명, 직원 대표위원 4명, 이사장 추천 사회인사 대표위원 3명, 총동창회 추천 동문 위원 2명, 학부생 대표위원 1명, 대학원생 대표위원 1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총추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국대는 11월 첫째주 중으로 각 단과대학과 교원 등에 총추위 구성에 대한 공문을 보내 총추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11월 말경 총장 후보자 초빙공고를 내고 11월 말부터 이틀간 후보자 지원을 받아 12월 초 후보자 소견 발표 및 후보 선출, 이사회에서의 최종 선출 등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 《열린비구니모임》 지지 성명서

지금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은 제10대 전국비구니회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에 분노하며 전국비구니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기구로서 비구니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10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향상보다는 마치 전국비구니회가 개인의 출세를 위한 정치의 온상처럼 역이용하며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이번 비구니운영위원회가 제16대 비구니 중앙총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역력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 전국비구니회가 정치의 온상으로 타락하였는가! 부끄럽고 부끄럽도다.

우리 선객들은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출가 수행자가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조금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전국비구니회는 대중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제10대 전국비구니회 회장과 운영위원장은 이번 일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전국비구니회가 수행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수좌들은 주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국비구니회의 운영을 걱정하여 뜻을 함께하고 있는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이번 사태를 유발시킨 장본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

**하나, 제16대 비구니총회의원은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총회의원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불기 2558년(2014)년 10월 28일

### 《열린비구니모임의 성명을 지지하는 수좌모임》

경진 능륜 능행 대월 대운 대훈 도강 도견 덕일 도헌 동근 동언 동안 동우 동일 명주 명지 무상 목윤 무염 무위 민욱 법승 법장 법준 법진 법해 보문 보민 보석 보안 보운1 보운2 상우 서진 석준 선운 선하 선혜1 선혜2 선현 성민 성원 성정 수진 승본 시현 심우 연정 영운 우원 운봉 운성 운정 육문 원관 원성 원정 원해 원혜1 원혜2 은일 인성 임미 일봉 일윤 일현 일호 일홍 자해 정묵1 정묵2 정수 정우 정혜 자민 자선 자현 자형 지광 지민 지명 지백 지원 지윤 지행 지환 진백 진선 진우 철안 하승 혁담 헌담 현광 현진 현정 현주 현진 헤림 헤묵 헤원 헤진 헤호 화남 효일 효정 희상